

“붉은 말 기운 받아 작업…서로 응원의 한 해 되길”

병오년 말띠에 예술가들의 포부

미술 정선휘 “말처럼 더 열심히 뛰어가야”
음악 김희경 “최선 다해 준비해 나갈 것”
문학 김황흡 “농사짓듯 성심껏 글 쓸터”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띠해를

앞두고, 지역 예술인들은 저마다 다른 시

간대에 서 있다.

누군가는 긴 연주의 여정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 펼칠 예술 세상을 향해 속도를 높인다.

같은 말띠지만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장르에서 활동해온 예술인들은 어떤 포부로 새해를 맞이할까.

미술계에서는 정선휘 작가(1966년생) 나노은영 작가(1990년생), 음악계에서는 김희경 상임단원(1966년생·광주시립교향악단), 재즈 보컬리스트 김은영씨(1990년생), 문학계에서는 김황흡 시인(1966년생) 등이 꼽힌다.

이들 작가로부터 올해의 소감과 계획을 들어본다.

먼저 정선휘 작가는 AI시대에 의한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 분야에 60세를 맞도록 지속할 수 있다

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장년을 지나서 원로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정 작가는 올해 만

60세를 맞아 회갑을 맞았는데 60세까지

한 직업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점을 실감한다는 반응

이다.

그는 “제 나이 또래에서 보면 오랜동안

한 직업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달

려가는 사람들을 경이롭게 바라본다”며

“더욱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

었다. 그야말로 AI는 사회학명을 견인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을 맞은 올해 말처럼

열심히 뛰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또 노은영 작가는 서른 다섯에서 서른

여섯이 됐는데 나이가 꺾였다는 생각 대신

한 살 더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에

집중해 나갈 계획을 내비쳤다.

노 작가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 잘 달려나가야겠다는 믿음이다. 지난해 개인전을 열었는데 올해는 개인전보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만 해놓고는 문을 쓰지 않아서 석사논문 작성에 전력을 다할까 한다”며

“다만 미술계가 시장이 작다보니 조금

시기와 질투, 견제가 있는 것 같다. 올해

는 서로 응원과 격려의 미술계가 되면 좋

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황흡 시인은 도시농부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농사와 사람을 빗대

말띠해를 설명했다.

김 시인은 과수나무를 키우는 것이나 사

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비슷해 농사를

지으며 하나 하나 삶의 진리를 깨쳐나가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시인은 “말띠해를 맞은 만큼 봄이 되면 과수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거름)를 주는 것으로부터 농사일을 시작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정신적 본업이 글쓰는 것인 만큼 더 열심히 글을 쓸 것”이라면서 “시집을 낸 지 조금 돼서 올해 시집을 내보고 싶다. 과수농사를 별탈없이 지어야 수확할 수 있듯이 올해 사람들 삶(농사)도 별 탈들이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희경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상임단원은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 9살 때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해 첼로를 만났다는 그는 1989년 광주시향에 입단했다. 36년 10월, 그의 삶은 시향의 역사와 함께 흐른 쌈이다.

김희경 단원은 “시향이라는 규모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전공을 살려 시

민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 행복했다”며 “시향 무대에 설 기회가 이제 열 순기록 안에 꼽힌다.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음악협회 기획분과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짚었다. “시향의 비상임 제체 보강과 예술단체의 안정성이 갖춰져야 도시 문화의 얼굴도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오는 2월께 문화학 박사 학위기 수여식을 앞두고 그는 ‘연주 이후의 역할’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김 단원은 “광주시향이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산’이다. 시민들이 공연 날짜를 기다리며 객석으로 발걸음을 옮겨걸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무대 위에서 내려온

뒤에는 관객으로서 시향을 응원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음악과 함께 제 삶을 깊이 있게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재즈 보컬리스트 김은영씨에게 병오년은 세 번째로 맞는 말띠해다.

지난 2010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그는 재즈와 뮤지컬, 공연기획 등으로 무대를 넓혀왔다.

지난 2일에는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카페 네이프에서 ‘김은영 트리오’ 공연으로 말띠 해의 문을 활짝 열었다.

김은영씨는 “백마띠에 태어나 12년마다 돌아오는 같은 띠의 해가 벌써 세 번째라니.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감사한 만남이 더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올해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다. 오는 2월 13일 카페 네이프에서 김은영 트리오 두 번째 무대를 갖고, 아트스페이스 흥화관에서 콘서트를 앞뒀다.

강진 극단 ‘청자’에서는 보컬 디렉터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한편, 2018년부터 매년 이어온 광주시 교단협의회주최 성단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그는 “음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감동을 전하는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사회·행정참여 증가 ‘성평등 진전’…시민 인식 변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2025년 광주 성인지 통계 4분기 ‘정치·사회참여, 문화·정보, 안전·환경’면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사회참여, 문화·정보, 안전·환경’에서는 여성참여 및 대표성, 계층 이동과 포용성에 대한 사회 인식, 문화와 여가에 대한 남녀 인식, SNS 이용률, 성별 안전인식, 범죄 및 생활안전, 환경오염 및 생활환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광주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4년 36.2%에서 2024년 52.6%로 과반을 넘어서었다. 특히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같은 기간 14.9%에서 40.3%로 약 3배 증가해 행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광주시 시민은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19~29세는 여성 33.6%, 남성 39.1%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40~49세에서는 여성 21.5%, 남성 32.8%로 남성 대비 여성의 인식 격차(11.3%)가 확인됐으며, 50세 이상에서는 다음 세대의 이동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국 모두 긍정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지역에서 2020년



2026 지방선거 정책 과제발굴 토론회 ‘여성의 시선으로 광주의 미래를 그린다’ 진행 모습.

여성가족재단, 25' 광주 성인지 통계 4분기 공개

문화·정보·환경 등 분야…안전·범죄 등 취약도

남성 64.3%, 여성 72.0% 대비 2024년 남성 64.4%, 여성 62.8%로 여성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긍정 응답도 2024년 처음으로 확 인됐다.

광주시 성인 중 문화·여가 생활 향유 여건이 ‘좋아졌다’고 인식한 비율은 2023년 여성 41.9%, 남성 38.3%로 2021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

광주시 13세 이상 시민의 범죄 안전 인식은 남녀 모두에서 약화되는 추세

로, 특히 여성의 불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기준 ‘비교적 안전’ 하다는 인식은 여성 16.8%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 인식은 여성 34.4%, 남성 23.9%로 증가했다.

야간보행에 대해서는 ‘매우 안전하다’는 인식이 남녀 모두 소폭 상승했으며, 불안 요인으로는 남녀 모두 ‘신문·뉴스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

를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활염을 반포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이번 성인지 통계를 통해 광주에서 여성의 사회·행정 참여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과 친밀관계 폭력, 노인 학대 등 안전·범죄 영역에서는 여전히 취약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광주 지역 여성과 가족의 삶을 반영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예술의 언어로 붉은 말띠해 포문 연다

광주은암미술관, 연시 기획전 22일까지

광주은암미술관(제작기 관장)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예술의 언어로 새해의 문을 연다. 취지로 연시 기획전을 지난 12월 3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갖는다.

‘불의 말, 시작의 불’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마련된 자리이며, 불(火)과 속도, 생명력, 변화라는 ‘붉은 말’의 이해의 상징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과 재생의 에너지를 시각예술로 풀어낸다.

아울러 이번 전시는 회화를 비롯해 조형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과 창작의 불꽃을 조망하며, 동시에 사회에 필요한 희망과 활력을 제시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강일호 작 ‘판도라의 상자’

신안·장흥 역사·문화 집대성 ‘디지털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일부터 ‘디지털 신안문화대전’과 ‘디지털장흥문화대전’을 온라인에서 선보인다.

디지털문화대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각 5억 원)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의 성과로 각 지역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담은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지리와 역사, 문화 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화 등 9개 분야로 구성된다.

구축된 모든 자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 해 여는 ‘한땀기부’…문화 수혜자서 주체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오늘부터 전일빌딩245

시민강좌 ‘보틀탑’, 천득염 교수 불탑 연구 공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2026년에도 시민이 문화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땀기부’ 시리즈를 운영한다.

‘한땀기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촉적한 지식과 경험을 시민과 나누는 공공 지식

나눔 프로그램이자, 문화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문화 운동이다. 강좌를 넘어 건축 상담소, 미술 인내소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시민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확장되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시민강좌로 천득염 명예 교수(전남대)의 ‘보틀탑’이 진행된다.

‘보틀탑’은 불탑을 아 어렵고 딱딱한 연구 대상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불탑 이야기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이 강좌는 천 교수가 평생에 걸쳐 연구해 온 불탑 연구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다.

한국에는 1400여개에 가까운 석탑이 남아 있지만, 이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마주 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강좌가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지식을 시민의 일상으로 옮겨줄 것으로 기대된다.